

민족의 명산 (5)



구월산의 절경사

여로부터 산전경계가 하도 아름다와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불리워온 이 땅에는 어딜 가나 자랑할만한 명승도가 많다.

구월산은 그 경치가 천하절경이다. 해발고가 954m인 여러 화강암봉우리로 이루어진 구월산은 사황봉, 이사봉, 삼봉, 오봉 등 99개의 봉우리를 이루고있으며 일명 백악 또는 서진이라고도 하였다.

단군이 살았다는 장담경과 환인, 환웅, 단군을 보냈다는 삼성사, 단군이 활쏘는 장소로 리용했다는 사궁서 등이 지금도 남아있다.

각산사, 달마사, 월출암, 칠성암 등 사찰도 많았다. 정공사는 사찰부근의 경치가 하도 수려하여 고려시대의 여러 임금들이 이곳을 지나다가 경치가 심취되어 수레를 멈추었다는 데로부터 생김 이름이다.

다양한 천연향료제품들

공화국의 평양향료공장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나라에 흔한 원료로 질좋은 천연향료를 생산하기 위한 새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있다.

이곳 연구사들은 향료식물선진으로부터 천연향료의 추출, 정제 등 모든 공정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제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천연향

료개발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연구사들이 개발한 인삼치약향, 유허복숭아향, 조미료용후추향, 음료용수박향과 껌용참외향, 꿀향 등 여러가지 향료제품들은 식료품과 기호품의 질을 높이고 사람들의 식생활향상과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이러한 행동은 피부부수축시켜 탭구멍을 막아줌으로써 체온조절기능을 비롯한 생리작용들을 약화시키고 면역기능이 떨어져 감기, 설사, 기침 등의 증상을 일으킬수 있는 요인으로 된다.

사화

《쇠도리깨다!》 (7)

글 리빈, 그림 김윤일

노술이와 일행은 첫새벽부터 날이 어두워 나무가지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러내대기 가공하여 쓸만한것을 찾아 험한 산을 헤메었다. 이 산타기도 왜놈잡이싸움으로 생각하고 접어든 그들이 고보니 철수가 없었던것이다. 노술이네 일행이 한팔을 떠난지 닷새만에 한직씩 해지고 돌아오니 그사이 아버지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불길은 없이 연기만 폴폴 피워올리며 천천히 타들어가는 모닥불머리에 아버지는 물푸레생나무 장부감을 꺾꽂이 찢어냈다. 한식경이 지나서는 그것들을 다시 한바퀴 돌려쪄냈다. 그레야 풀고루 익는 것이다. 나무는 젖은 생것이 고 불은 불길이 없이 온은히 피는 북대기불이므로 나무는 타지 않고 뜨거운 불길에 찌진다.

모닥불에 찌내어 골개 퍼거나 구부리는 일을 《잡기》 혹은 《잡는다》고 한다. 노술이부부와 의병들은 현로인을 도와 밤새껏 이 잡기를 하였다. 집집마다 백탄을 구웠다. 연기가 다 빠진 잉겔불에 흙을 푼 듯하다가 하루밤쯤 지나서 해처럼 솟아 되는데 걸면 해처럼 재가루 같은것이 덩어리므로 《백탄》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현로인의 대장간에 와서 쌓여졌다. 대장간에서는 낮에 밤을 이어 메질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낮날, 호미날부분을 시벌경계 달구어 조금씩 으러리며 메질로 드림다 두드리면 넓적하던것이 슬베에 잇달려 갈은 모양으로 가느다란 막대기가 된다. 본래 이런 슬베와 새로 늘어난 이부분의 길이는 두어봉정도이다. 이것의 량전머리를 조금 더 가늘게 뽑아 고리를 만들고 다른것과 련결한다. 이런 식으로 두개 혹은 세개를 이어놓는다. 이어진 마디가 두개인 도리깨들이면 원래의 나무도리깨아들의 기장보다 조금 짧고 세마디면 서너너덜치 더 길었다.

노술이와 일행은 첫새벽부터 날이 어두워 나무가지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러내대기 가공하여 쓸만한것을 찾아 험한 산을 헤메었다. 이 산타기도 왜놈잡이싸움으로 생각하고 접어든 그들이 고보니 철수가 없었던것이다. 노술이네 일행이 한팔을 떠난지 닷새만에 한직씩 해지고 돌아오니 그사이 아버지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불길은 없이 연기만 폴폴 피워올리며 천천히 타들어가는 모닥불머리에 아버지는 물푸레생나무 장부감을 꺾꽂이 찢어냈다. 한식경이 지나서는 그것들을 다시 한바퀴 돌려쪄냈다. 그레야 풀고루 익는 것이다. 나무는 젖은 생것이 고 불은 불길이 없이 온은히 피는 북대기불이므로 나무는 타지 않고 뜨거운 불길에 찌진다.

이후로 의병들이 혁혁한 전과를 올릴것마다 그는 내놓고 탄복을 리뜨리곤 하였다. 《...날이나 털어먹던 농쟁이가 왜놈잡이병기가 되다니! 이렇듯 훌륭한 병장기를 제손으로 만들어 나라원에게 크게 이바지한 우리 봉산당 주인들, 의병들이야말로 장 한시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애국충신이야!》 (끝)



기치기(거리고차)는 수레가 굴러가면서 자동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구이다. 수레바퀴의 회전수에 따라 종과 북이 울리게 되어있는 기치기는 1441년 3월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2 중아시아마라손선수권보유자 김혜경



2015년 공화국의 김혜경 선수수는 제15차 아시아마라손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2010년에 진행된 국제 육상련맹-제23차 만경대상마라손경기대회 반마라손경기에서 1위를 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어 국가종합팀에 망라되게 되었다.

그는 제16차 아시아마라손 선수권대회 준비기간에 육체적능력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훈련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였다. 높은 정신력과 의지, 훈련에서 훈련 열정의 구슬땀은 그대로 경기성곽에 이어졌다. 제16차 아시아마라손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김혜경선수는 105리주로를 힘차게 달려 결승선에 맨 먼저 들어섬으로써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었다.

그는 2중아시아마라손선수권보유자이다. 그는 2중아시아마라손선수권보유자이다.



평양출판사에서 소책자 《민심의 목소리》를 출판하여 내놓았다. 소책자에서는 사대와 외세의존, 전쟁을 반대하여 남조선에서 줄기차게 벌어지는 각계층의 투쟁을 소개하면서 분열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려면 누구나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민심의 목소리》

외세에 대한 사대와 아부굴종속에서 남조선인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데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전쟁연속 중단하라》라는 소제목에서는 한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이 평화를 절절히 갈망하고있지만 전쟁이 끝난지 반세기이상인 지난 오늘도 조선반도에겐 평화가지들지 않은데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소책자는 평민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없이 력사의 웨침앞에 자신을 세워보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화

《쇠도리깨다!》 (7)

글 리빈, 그림 김윤일

노술이와 일행은 첫새벽부터 날이 어두워 나무가지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러내대기 가공하여 쓸만한것을 찾아 험한 산을 헤메었다. 이 산타기도 왜놈잡이싸움으로 생각하고 접어든 그들이 고보니 철수가 없었던것이다. 노술이네 일행이 한팔을 떠난지 닷새만에 한직씩 해지고 돌아오니 그사이 아버지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불길은 없이 연기만 폴폴 피워올리며 천천히 타들어가는 모닥불머리에 아버지는 물푸레생나무 장부감을 꺾꽂이 찢어냈다. 한식경이 지나서는 그것들을 다시 한바퀴 돌려쪄냈다. 그레야 풀고루 익는 것이다. 나무는 젖은 생것이 고 불은 불길이 없이 온은히 피는 북대기불이므로 나무는 타지 않고 뜨거운 불길에 찌진다.

이후로 의병들이 혁혁한 전과를 올릴것마다 그는 내놓고 탄복을 리뜨리곤 하였다. 《...날이나 털어먹던 농쟁이가 왜놈잡이병기가 되다니! 이렇듯 훌륭한 병장기를 제손으로 만들어 나라원에게 크게 이바지한 우리 봉산당 주인들, 의병들이야말로 장 한시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애국충신이야!》 (끝)

이 차레로 련결되었는데 이차차들은 첫 차차가 15바퀴 회전하면 가운데차차는 1바퀴, 가운데차차는 1바퀴 회전하면 뒷차차는 1바퀴 회전하며 뒷차차는 1바퀴 회전하면 가운데차차는 1바퀴 회전한다. 종과 북을 치는 기구는 가운데차차와 마지막차차에 설치되었다.

역사상식 기레차



도루메기식혜

도루메기식혜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피로를 인차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루메기 2kg일 때 무우 1kg, 좁쌀 50g, 파 50g, 마늘 20g, 생강 5g, 고추가루 80g, 참깨 10g, 소금 200g을 준비한다. 도루메기는 대가리와 꼬리를 자르고 내장을 빼낸 다음 깨끗이 씻어서 3cm길이로 토막낸다. 무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2.5cm, 두께 0.3cm 되게 썰어놓고 파는 2.5cm길이로 토막을 낸다. 마늘과 생강은 다진다. 좁쌀은 퇴직하게 밥을 지어 식힌다.



속담과 뜻

◆ 김치국 먹고 수염 쓴다. 혼한 김치국을 먹고도 무슨 좋은 음식이나 먹듯 이 수염을 쓰다듬는다는 뜻으로 조그마한 일을 하고 무슨 큰일이냐 한것처럼 뽐내거나 또는 못났것이 잘난체함을 풍자하여 이르는 말이다.